

가축 배설물로 만든 친환경 퇴비 인기

함평농협 농·축산 순환자원센터 건립을 1월부터 생산 해양투기 금지 축산 분뇨 처리하고 농가 도움 일거양득 5월까지 20kg 들이 15만포대 판매...농가들 주문 쇄도

함평농협(조합장 김형모)이 가축 배설물로 만든 친환경 퇴비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가축 배설물을 처리하고, 친환경 퇴비로 농가에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함평농협 농축산 순환자원센터는 18일 "친환경 가축분 퇴비인 '함평 e(이)조'는 1등급 나비퇴비"가 출시돼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농협은 지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농·축산 순환자원센터를 건립했다. 함평읍 장교리 6만427㎡ 부지에 총사업

비 84억9900만원(국비 32억1500만원, 도비 9억6500만원, 군비 29억5500만원, 자부담 13억6400만원)을 들여 건립된 농·축산 순환자원센터는 액비동, 분뇨처리장, 퇴비보관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가축분(우분 40%, 계분 20%, 돈분 10%)에 톱밥과 버섯배지, 왕겨 등을 섞어 만들었다. 또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을 60~70일가량 충분히 발효시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퇴비를 만들 수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나 출처가 불분명한 슬러지 등을 전혀 넣지 않은 이 퇴비는 농가에서도 안심



하고 쓰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퇴비 생산에 들어가 지난 5월 현재 15만포대(20kg 기준)의 퇴비를

생산·판매했다. 이는 올해 판매 목표량인 30만 포대의 50%를 이미 달성한 수치다. 퇴비를 사용한 농가의 추가 주문도 이어지고 있어 함평농협은 2015년 50만포대, 2016년 70만포대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함평농협은 농촌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협이 직접 퇴비 살포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모 조합장은 "농협에서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충분히 발효시켜 품질은 물론 약취가 없어 농업인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면서 "농·축산 순환자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축산분뇨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지역보급용 퇴비로 활용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kwangju.co.kr

내달 18~19일 '함평단호박 큰잔치'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단호박을 테마로 한 축제가 함평에서 열린다. '2014 함평단호박 큰잔치'가 다음달 18~19일 이틀간 함평군 월야면 월야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다. 함평 월야농협(조합장 정광우)이 주최하고, 함평단호박 향토산업사업단(단장 설인철 부군수)이 주관하는 이번 단호박 축제는 품질이 뛰어난 함평 단호박 브랜드를 홍보하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보

급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호박 축제는 단호박 옛과 국수, 막걸리 등 단호박 가공식품 시식회와 품평회가 펼쳐진다. 또 시범포와 터널재배 하우스에서 단호박을 직접 수확하는 체험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호박·함평전지 한우 경매, 주부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kwangju.co.kr



자전거로 섬 한바퀴 신안군 임자초등학교(교장 김태환) 3학년 학생들이 최근 대광해수욕장에서 자전거 도전실천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교사 2명과 학부모 2명, 학생 13명은 '실천중심 인성교육과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자전거를 타고 대광 해수욕장 등 섬을 한바퀴 도는 총 15km길이의 도전활동을 펼쳤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농어촌공 무안·신안지사 농지은행사업 1위

전남 18개지사 상반기 실적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지사장 박종호)가 올 상반기 농지은행사업 실적 1위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는 지난 17일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2014년 상반기 경영 실적 평가회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회의'에서 전남 도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무안·신안지사는 5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사업비 대비 87%인 95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남 18개 지사가 추진한 사업비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무안·신안지사의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는 128억이지만 연간 사업비의 120%인 150억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호 지사장은 "1990년부터 지난 해까지 농지은행사업비 지원대상 농업인 총 7012농가를 대상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해 농가당 평균 2800만원, 총 1978억원을 지원했다"며 "지원요건을 갖춘 지역 농업인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농지은행사업 자금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들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마을회관과 영농 현장 등을 찾아 열정적으로 뛰어들며 사업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으로 ▲쌀 전입농 등의 농지규모 확대자금(연리 1%, 20년~30년 상환) ▲부채과다 농가의 경영회생지원 자금(무이자, 10년) ▲고령 은퇴농가에 대한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 및 농지연금 사업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임대 수·위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 예술의 전당 24일 문 연다



영광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 될 영광 예술의 전당(사진)이 문을 연다. 영광군은 오는 24일 오후 영광 예술의전당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관식은 기념식수, 테이프커팅, 국악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개관식에는 기관·사회단체와 다문화가정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9월 매일 첫째주와 셋째주에는 영화

를 상영하고, 매일 둘째주와 넷째주에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전시회가 열린다. 영광 예술의전당에는 최신 무대 조명 장치와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이 설치됐다. 한편 영광 예술의전당은 '천년의 빛 영광의 태양'을 모티브로 한 아름다운 건축물인 영광예술의전당은 세계적 디자인 수준을 입증하는 GDP (Good Public Design)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친구들과 함께 엄마나라 문화여행

함평군 '다문화 가정 모국 문화교실' 큰 성과

함평군과 함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김기영)가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 모국(母國) 문화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관내 초·중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 다문화 이해하고 체험하는 교실을 열고 있다. 최근 신광면 신광초등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문화교실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문화 강사의 설명과 함께 음식만들기, 의상입기, 놀이하기 등 체험을 하고 소감을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다.<사진> 심은서(신광초 5년) 학생은 "체험 활

동이 다양하고 재미있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나는 외국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친구'로 가장 많이 답했으며, '이웃'과 '가족'이 뒤를 이어 다문화 체험교실이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 관계자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 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kwangju.co.kr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정문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악구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